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기념 보고서

발 행 일 2024. 12.
발 행 인 배은영
발 행 처 도남사회복지관
편 집 인 서효승
주 소 지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153
연 락 처 055.645.0645
홈 페이지 www.donamswc.kr
디 자 인 인디자인



002 여는 글

- ▶ 발간사
- ▶ 축 사

014 도남사회복지관 30년 발자취

- ▶ 복지마을을 꿈꾸는 첫 발걸음 (1994-1999)
- ▶ 마을에서 즐거운 나눔 (2000-2005)
- ▶ 마을에서 주민과 행복한 성장 (2006-2010)
- ▶ 마을에서 주민되어 소통 (2011-2015)
- ▶ 마을 곳곳으로 찾아간 동행 (2016-2020)
- ▶ 주민과 함께 해피스마일한 복지마을 (2021-현재)

134 2024년 주요사업 보고

- ▶ 복지관 소개
- ▶ 해피스마일한 열두 가지 소식
- ▶ 프로그램 한 눈에 보기

146 참 좋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 ▶ 자원봉사자
- ▶ 후원자

152 스마일 메시지

- ▶ 나는 사무실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 ▶ 도남사회복지관은 주민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는 글

- › 발간사
- › 축 사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



해피스마일한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을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간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 다시 시작,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첫발을 딛고 맺은 인연들이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인연들
함께하는 인연들
함께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서툰 걸음 같이한 30년
도전하며, 실패하며, 울고 웃으며
복지관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주민,
그 안에 직원들 행복이 있어 감사합니다.

해피스마일한 복지마을을 위해
주민과 함께 유아, 청소년, 성년을 지내고
중장년, 노년의 모습을 또 다른 설렘으로
꿈꾸고 준비하는 이 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도남사회복지관장 **배은영**



축사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도남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

먼저, 「2024년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기념책」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오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도남사회복지관이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이 이룩해 온 30년의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과 정성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도남사회복지관이 전하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기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택내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국회의원 정점식



축사

도남사회복지관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남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와 나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이 이룬 모든 성과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직원분들의 헌신과 참여 덕분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할 때 항상 곁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걸어 가겠습니다.
복지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통영시장 천영기



축사

존경하는 도남사회복지관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의 30년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 헌신과 노력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통영시의 복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남사회복지관 가족 여러분!
도남사회복지관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주민들의 삶에 따뜻한 희망을 더해주는 귀한 동반자입니다.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이라는 주제는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넘어,
앞으로도 더 큰 희망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는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저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자리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남사회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며,
통영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도남사회복지관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통영시의회 의장 **배도수**



축사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버팀목으로써
지역사회와 항상 함께해온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은 1994년 5월 설립되어 이후 30년간
경남 도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과 '함께'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지금의 시간을 갖기까지 함께 해주신 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남사회복지관이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과
역대 관장님들 특히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의 고유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0년간 동고동락하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 주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30년 또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정성기**



축사

반갑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지역 내 30개 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가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통영에서 첫 사회복지관으로 개관하여 지역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직원분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년간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담은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 발간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를 자양분으로
또다시 지역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내일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복지관에 몸담은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도전과 실패의 거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면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의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경남사회복지관협회장 **장수용**



축사

1994년 개관하여 30주년을 맞는 도남사회복지관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1990년 통영YWCA 창립 후 통영시로부터 첫 번째 위탁받은 기관이므로
더욱 애착이 갑니다

사람의 나이 30이면 이립(而立) 마음이 확고하여
도덕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라고 합니다.
법인 통영YWCA는 그 동안 도남사회복지관이 활동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통영시 사회복지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연대의 기회 마련함에 함께 기뻐합니다.

「30주년 기념사」를 발간 하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나날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더 울컥한 순간입니다.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 30년 후 60주년 이순(耳順),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는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더욱 성숙한 모습의 도남사회복지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사단법인 통영YWCA회장 **원필숙**



사)통영YWCA

1994년 개관 후 30년이 지나 2024년이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1년 사)통영YWCA로 운영법인이 바뀌고 2009년 통영에서 개최한
영호남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이 통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관장으로 재임 중 경남협회장을 역임하면서
호남협회장님과 나란히 자리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움이 있는 바다를 보며 함성을 자아내던 임직원들의 모습을 아련히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전국과 경남 그리고 통영에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확대, 복지관과 지역 간 교류, 직원 역량 강화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은 도전과 실패로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단단해진 모든 직원을 응원하며 지역 안에서 거듭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관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창립회장 원경숙



증경회장. 최명자

끊임없이 진행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도남사회복지관 모든 직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과 섬김으로 실천하시길 응원합니다.

증경회장. 허점숙

지역사회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직원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증경회장. 이현실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해 온 것에 칭찬을 보내며 응원합니다.

증경회장. 임봉선

사)통영YWCA와 함께한 도남사회복지관 3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번째, 100번째 생일을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면서 맞으시길 응원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환생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어렵고 소외된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봉사로
함께 걸어난 발자취를 높이 삼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받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김용우

강산이 다섯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이웃과 함께해 온
긴 시간을 기억하고 지역 안에서 굳건히 자리하며 변함없기를 응원합니다.

위원. 원경숙

30년 성년이 됨을 축하합니다.
성년이 되어 가는 것을 함께했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쭉~욱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

위원. 정희민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의 마음이 지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 황차열

지난 30년간 지역사회 복지관으로 소외된 이웃이 홀로 있지 않도록 따뜻한 베풀이 되었으며,
전문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알찬 사업에 찬사를 보냅니다.
복지를 통하여 인류애를 구현하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원. 허도명

도남사회복지관 해피스마일, 명칭만 들어도 포근한 가족같은 곳.
통영시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 지 30년. 앞으로도 이웃과의 따뜻한 동행을 응원합니다.

위원. 서성록

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역복지 발전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도남사회복지관 30년 발자취

- ▶ 복지마을을 꿈꾸는 첫 발걸음 (1994-1999)
- ▶ 마을에서 즐거운 나눔 (2000-2005)
- ▶ 마을에서 주민과 행복한 성장 (2006-2010)
- ▶ 마을에서 주민되어 소통 (2011-2015)
- ▶ 마을 곳곳으로 찾아간 동행 (2016-2020)
- ▶ 주민과 함께 해피스마일한 복지마을 (2021-현재)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



주민과 함께 해피스마일한
도남사회복지관 30년

•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관 주요 연혁

- 1906년 원산 인보관 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 1989년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
- 2024년 현재 전국 483기관/경남 31기관

1990

- 1994. 04. 도남사회복지관 운영 승인 및 수탁(운영법인: 도남새마을금고)
- 1994. 07. 도남사회복지관어린이집 개원

2000

- 2000. 02.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소
- 2001. 05. 운영 법인 변경(사단법인 통영YWCA, 관장 제경화)
- 2003. 09. 관장 변경(원경숙)
- 2005. 03.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
- 2007. 0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작
- 2007. 0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작 ->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통합
- 2008. 0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작
- 2008. 08.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지정 ->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통합

2010

- 2010. 0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작 -> 통영지역자활센터 통합
- 2011. 01. 관장 변경(제경화)
- 2011. 10.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종류 변경(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2018. 01. 센터 이전(동충1길 4)
- 2014. 01. 관장 변경(배은영)
- 2014. 0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지원사업 시작 ->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통합

2020

- 2020. 03. 고령친화도시 인증사업(청춘마을학교, 여가그가 어르신놀이터) 시작
- 2020. 06. 기억채움마을 시작(통영치매안심센터 협약)
- 2020. 10.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작
- 2024. 07.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 시작

• 년도별 주요사업

년 도	주 요 사 업
1994년 - 1999년 복지마을을 꿈꾸는 첫 발걸음	- 도남사회복지관 개관도남사회복지관어린이집 개원 - 성인 한글교육 시작 - 간병인 교육 시작 및 통영간병사회 운영 - 취미교육(헤어컷트, 양재, 컴퓨터, 꽃꽂이등) 시작 -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시작 - 청소년 어울 한마당 실시 - 재가복지사업(일상생활지원, 경제적지원, 밑반찬지원, 정서지원등)시작
2000년 - 2005년 마을에서 즐거운 나눔	- 재가노인복지사업(가정봉사원파견사업) - 결식우려 어르신 급식지원(중식배달, 경로식당) 실시 - 강구안 무료 이동급식소 운영 - 특수아동통합어린이집 운영 -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기획 및 운영 - 통영-대전 고속도로 전구간 개통기념 '이순신장군 마라톤대회' 참여
2006년 - 2010년 마을에서 주민과 행복한 성장	- 바우처사업(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작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작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작 - 노인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지정 - 초등학생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 시작 - 태안반도 기름 유출 기름 방제 자원봉사 참여 - 마을축제(봉숫골 축제) 참여 '결혼이주여성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11년 - 2015년 마을에서 주민되어 소통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지원 시작 - 통영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거점기관 협약 - 주민 참여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기획 및 운영 - 통영관광개발공사 협업 '느린우체통' 운영 -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음악회' '참 좋은 동행점' 참여 후원 업체 개발 및 관리
2016년 - 2020년 마을 곳곳으로 찾아간 동행	- 재가노인복지사업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이전 - 기억채움마을(통영치매안심센터 협약) 시작 -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운영 1:3세대통합 '상상돌 프로젝트' 운영 - 지역내 캠페인 '지역복지운동' - 코로나시대 비대면 활동 - 초등학생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 시작 - 청소년 꿈 디자이너사업 '꿈꾸는 아이들' 시작
2021년 - 현재 주민과 함께 해피스마일한 복지마을	- 세대통합 '청춘마을학교' 운영 및 여가그가 '어르신 놀이터' 운영 - 주민 자조모임 '행복위원회 조직 및 마을 공동체 활동'마을벽화 '꿈틀꿈틀 동백 이야기' - 휴경기 경작과 나눔 '신활력 플러스 사업' - 공유 캠페인 '스마일 우산' - 환경 교육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실시 - 주거안전 돌봄 '안전한 우리집을 부탁해' 실시 - 민·관 사회복지 '여깨동무 네트워크' - 지역 내 통합돌봄 '희망나눔 통합돌봄' 실시 - 지역으로 찾아가는 '마을 복지관' 실시



1994 - 1999

복지마을을 꿈꾸는 첫 발걸음

첫 발걸음은 항상 설렌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이 더해져서 더욱더.

사회복지...복지마을...
서툴지만 더불어 함께 소통하고 나누어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들!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소중하다.



28년전, 처음 복지관에 취미·교양 수업으로 헤어커트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고향이 아닌 통영으로 결혼하고 와서 자녀들 키우느라 바깥 생활이 없던 제가 첫 수업을 하러 나섰던 날, 수료식 후 어설픈 실력으로 통영 육아원에 봉사 활동 갔던 날, 배운 기술 한번 써보겠다고 딸 앞머리 잘라줬던 날... 좋은 인연과 추억을 남겨준 복지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인연이 지금 제 자녀가 다시 한번 끈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의 직원으로 '내일도, 해피 스마일'하게 지역 주민과 함께 또 다른 인연을 맺으며 활동할 녀석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며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편안한 복지관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취미교실
참여자. 정경숙



25년 전, 방과후 교실을 다니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여러가지 즐거운 경험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은 복지관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의 꿈을 키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보여준 도남사회복지관의 노력과 열정을 기원합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사업
참여자. 김혜지



20여 년 전, 저의 젊은 날을 함께했던 이곳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순간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지금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남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남사회복지관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어린이집
전)도남사회복지관어린이집 교사. **홍수정**



도남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7년을 근무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스쳐지나갑니다.

2024년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되어 어르신들과 마실 놀이터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놀잇감을 대여, 건강·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여러 따뜻한 복지사업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앞만보고 애쓰며 달려온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변함없는 사랑 가득한 사회복지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남사회복지관어린이집
전)도남사회복지관어린이집 교사. **나정아**



제 인생에서 사회의 첫발을 시작한 곳이라 그런지 항상 마음이 갑니다.
 퇴사한 지 20여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 처럼요..
 앞으로도 30년 아니 300주년 될때까지 고고고 입니다.
 해피스마일 도남사회복지관 파이팅 ♡♡

전)담당자. **이재은**

지역복지라는 개념이 자리잡기 전부터 통영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노력이 30년의 세월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우리 지역의 보석이 되었네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맺은 인연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정겨운 웃음과 따스함이
 가득한 쉼터로 더욱 반짝이는 도남사회복지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박은주**
 알뜰바자회·재가복지서비스



1994년 도남동 부녀회 활동으로 복지관 김장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은지 30년이 되었습니다.자원봉사자,
 가정봉사원, 요양보호사로 함께하면서 내 나이도 이제는 70이 훌쩍 넘었습니다.지난 날을 회상하면 사람 냄새나는
 정겹고 행복해서 웃을 일이 참 많았습니다. 늘어난 주름 만큼의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이 순간도 행복합니다. 마을이 행복한 중심에 도남사회복지관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가정봉사원. **김종현**

도남사회복지관과 함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봉사자로서 이곳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의
 미를 지니고 있는지 감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
 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남사회복지관의 헌신적인 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왔는지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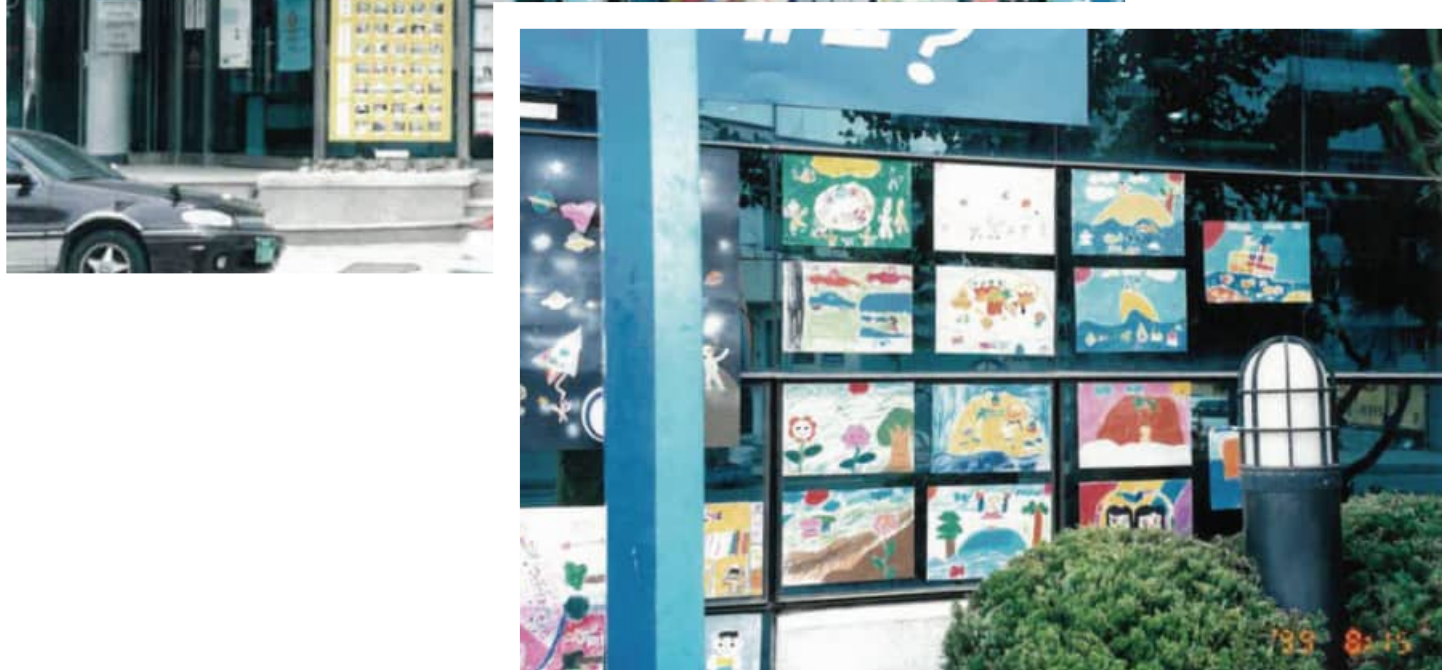
처음 도남사회복지관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
 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복지관과 함께하며 어
 르신들께 딸이나 며느리처럼 다가가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함께 병원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령게 도남사회복지관은 저의 청년 시절뿐만 아니라, 장년 시절까지 함께하며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재가복지 요양보호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10년 이상 한 어르신을 돌보며 매
 일매일이 보람차고 값진 시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그분의 일상을 함께 나
 누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었던 경험은 제가 복지관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습니
 다. 도남사회복지관의 지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은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은 모두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남사회복지관이 걸어온 길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남사회복지관이 그동안 그래왔듯이, 지역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가정봉사원. **강옥금**
 재가복지서비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동안 도남사회복지관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며, 지역사회 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과 열정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관의 가치와 사명을 굳건히 지켜온 모든 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배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조력의 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고령화 사회,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도봉새마을금고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풍성한 복지를 위해 더욱 많은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아나바다 운동
도봉새마을금고 이사장 **한희영**



아나바다운동이 여러 모양으로
일상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었다.
물건이 새 주인을 만나면 과거의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어 소중함이 배가된다.

조금은 늦었지만,
연지 곤지 짝고 수줍음을 떠올리며
부부의 연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행복한 날!
오래 오래 백년해로하세요.

전통혼례



마을 어르신들의 낮 동안 돌봄 공간이 생겼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있어 좋고,
밤새 안부를 묻고, 같이 먹고 놀면서
이웃사촌으로 지낼 수 있어 좋은 날.

오늘도 나를 반겨줄 친구가 있는 그곳으로 갔다.
설렘과 두려움으로 첫발을 딛고
1년을 뒤돌아보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감사하다.

탁노소 · 94년 사업보고



조용하고 따뜻한 수많은 손길이 모였다.
두 손이 네 손으로 열여섯 손이 되어
혼자가 아닌 함께했다.
지역 분들과 함께해서 기쁨과 행복도
눈덩이처럼 커졌고 따뜻했다.

자원봉사 활동



2000 - 2005

마을에서 즐거운 나눔

나눔은 항상 배가되어 돌아온다.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나눔은 즐거움이다.
마을에서 나눔은 즐겁고,
그 즐거움은 배가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



조부모와 손자녀 가정 돌봄은
지역의 관심과 사랑이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노후와
손자·손녀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감사하다.

조손세대 프로그램



함께해서 행복 했던 날들,
오라하면 댁따 가고 싶은 곳
남 부럽지 않던 곳
사람 냄새 나는 곳
회의적이지 않던 곳
복지의 지존들만 모여 있는 곳
지역 사회의 메카
관심이 절로 가는 도남사회복지관!

자원봉사 활동



낮 동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돌봄과 만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탁노소에서 이름이 바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더 어르신들의 눈높이와 바람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내일의 즐거운 만남을 기약하고
오늘도 어르신을 댁으로 모셔드린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람 냄새 나는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걸어 갈
아름다운 길에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장애인 제주도 나들이
사)통영YWCA 사무총장. 제경화



아이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은 감동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행복하고, 따뜻한 소식
전하는 멋진 도남사회복지관 되세요.
응원 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세상만들기
참여자. 김동환 엄마



2001년 컴퓨터 강사로
이곳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끔씩 앨범 속에 있는 직원들과의 사진을 보면서
그 추억을 회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함께하는
도남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웃을 복지와 관계를 유지해 주길 소망합니다.



컴퓨터교실
전)컴퓨터 강사. 김기철



대한민국!! 짹 짹 짹 짹

대한민국을 온통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던 2002 한일 월드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2002년은 바로 제가 도남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통영YWCA 간사로 일하던 저는 도남사회복지관을 통영YWCA가 위탁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위탁식 날 처음 뵈었던 복지관 직원들의 상기된 표정과, 함께 자리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도남사회복지관에서 약 9년 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역 주민을 대했으며, 저의 사회복지 마인드도 자연스레 이 곳 도남사회복지관에서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 준, 통영시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도남사회복지관이 개관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도남사회복지관을 축복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도남사회복지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장 조혜원



복지관 개관 10번째 생일을 맞아
축하의 자리가 열렸다.

날은 쌀쌀하고 추웠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따뜻했다.

10년은 또 다른 시작~~!!

개관 10주년 행사



간병인 교육 수료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통영간병사회'가 만들어졌다.

지역 내 병원과 연계한 병원간병과 재가간병을 통해
소득원이 되고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준다.
장기요양보험과 바우처사업의 근원이 되었다.

통영간병사회



공직생활과 함께 시작된
봉사활동

도남복지관 선생님들과의 만남
장애인 가족들과의 만남

봉사활동 시간 다가오면
설렘 가득^^
어떤 때는 정든 가족과의
이별도 있고~~



달려가다보니 20여년
봉사활동

그러나~~
나의 봉사활동은
이제부터 시작^^!!

재가복지서비스
자원봉사자. 옥윤복



초대 복지관 관장님과의 인연으로
복지관을 알게 되고,
복지관 선생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인연을 맺은게 벌써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가게에 직접와서
돈가스와 치킨을 먹고 갔는데
맛있게 잘 먹는 모습에
음식 조리도 더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3년 정도 외식지원을 하다가
이후에는 각 가정에
직접 돈가스를 전달하게 되었고,
평소 외식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여
맛있게 드신다고 생각하니
보람도 되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가 97년도에 오픈했는데
복지관은 그보다 앞서
94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하니
우리 가게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며,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달라스 외식지원
후원자. 조규홍



행복한 복지관♥
친절하고 밝은 직원분들이랑
즐겁게 일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자기 일 아니라도 다 같이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웃으면서 즐겁게 일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따뜻한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조리사님들 요리 솜씨가 좋아서
밥이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나네요.^^

주민 한마당
전)직원. 김지후



복지관이 학교로 갔다.
학생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진행했다.

직접 만든 도미노 게임, 급식실 앞 벽화 그리기,
신체활동 등을 통해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 학생이 자라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되기 위해 복지관을 방문한다.



우리끼리 버디버디



대~한~민~국 짹짹!!!!
2002년 온 세상을
붉은 물결로 만든 월드컵!

어린이집 원아들이 저금통을 가지고
복지관으로 찾아왔다.
고사리 손길의 작은 나눔은
큰 사랑이 되어 실천되었다.



2002년 월드컵



지난 30년간 열심히 노력해 주신
복지관 가족 구성원분들과 역대 관장님들의
수고와 애씀에 지역주민으로서 매우 고맙게 여깁니다.

긴 세월만큼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쁘기도, 슬픈기도 했겠지만 기억 속에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번의 바뀐 세월을 이겨내며
지역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온
도남사회복지관의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영지역자활센터 개관
통영지역자활센터장. **김근열**



벌써 30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급식봉사 · 한글수업봉사 · 목욕봉사 등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
주변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클라이언트들이 자주 찾고
만족해하는 복지관으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김순희**

강구안에서 무료급식과 결식 어르신 도시락 배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당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강구안에서 중식지원과
집집마다 도시락을 매일 골목골목길을 다니며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며
안부를 물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비가와서, 바람불어서, 날이추워서, 더워서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지만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늘 한결 같이 따뜻한 식사 한끼가 사랑과 함께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외된 이웃 주민들의 희망과 등불이 되어주는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급식
전)담당자. **유상정**





봉평동에서 빵집을 시작한지가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보다도 5년 전에
도남사회복지관이 있었네요.

빵집을 오픈하면서부터 복지관에 후원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함께 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30주년에 감사 빵을 더 크게 한턱 싸야겠네요.
앞으로도 마을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남사회복지관이 되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사업
후원자. 고려당베이커리 **오명임**



도남주공아파트 앞마당에서 잔치가 열렸다.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한 놀이 활동과 선물이 있다.
뽀니 뽀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인간 낚시 체험이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낚시감이라 더 신났다.



도남주공한마당



복지관 앞마당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가 왔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 가득한 점심 한 끼를 드렸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지역자원연계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

지금은 사라진 충무관광호텔에서
자원봉사자 축제의 밤이 열렸다.

1년 동안 복지관과 함께하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계속된 활동을 바라는 시간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 축제의 밤



2006 - 2010

마을에서 주민과 행복한 성장

설렘과 도전으로 시작하는 일들은
모두를 성장하게 한다.

실패로 인한 좌절, 실망, 우울함으로 포기하고 싶어도
마을에 주민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
다시 함께하기에 우리 모두 성장한다.



이겨라~~이겨라~~

2005년부터 여러 모양으로
3세대가 함께하는 한마당이 진행되었다.

복지관 앞마당, 뒷마당, 광장,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3세대가 함께하는 활동이 있다.
함께 어울림은 예상치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지속된다.



3세대 화합 한마당



어린이집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김장 체험을 하러 왔다.
저금통을 모아 기부를 하면서 참여를 한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아파하는 아이,
마냥 신기해하는 아이, 맛있게 간식 먹는 아이,
김장 놀이라고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어린이집 김장 체험



3일 동안 김장이다. 1년 중 가장 큰 일!
 직원들이 우의를 입고 새벽부터 칼을 들고 정성스레 재배한 배추 후원자 농장으로 출발한다.
 자른 배추를 차량에 싣고 복지관 앞마당으로 옮기면 자원봉사자들이 오전에 절이고,
 오후에는 뒤집고 이튿날에는 세척을 한다.

세척한 오후에는 채를 썬 무, 갓, 파, 마늘, 젓갈, 고추 등으로 양념을 만든다.
 삼 일이 되는 날, 오전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이 시작된다.
 오후에는 미리 정한 대상자들에게 정성 담긴 김장을 배달하면 마무리가 된다.
 생각하면 허리 아프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참 좋았다.



통영수도센터는 도남사회복지관과 함께 명절맞이 정나누기 행사, 벽화 그리기, 주민과 함께하는 워터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함께 웃고, 맘 흘리며, 더욱 따뜻한 통영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통영수도센터와 도남사회복지관이 함께 손잡고, 통영시의 모든 시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 또한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성장을 이뤄가기를 기원합니다.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통영수도센터 사회공헌 활동
한국수자원공사 통영수도센터장. 이충권



효 나들이는 온천관광이 최고!
나들이는 지금까지 후원자인 '동백관광'과 함께였다.

가을 단풍 보며, 따뜻한 온천에 몸 담고,
불고기를 점심으로 먹고,
오가는 차 속에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며 춤추던 기억들이 좋다.



어르신 효나들이
동백관광 대표. 정희민



장애인활동 지원사로 10여년 동안 근무한
소중하고 인연이 깊은 복지관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며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지만
뒤에서 지켜봐 주고 응원해주시는
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
많은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년으로 퇴직을 하고 이후
노인일자리사업단 참여자로 다시 복지관과
저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지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 복지관 개관
40주년 50주년 기념하는 날이 오기를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응원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장애인활동지원사. **이영희**



지금은 퇴직했지만
30여년간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봉사를
함께 실천 할 수 있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그리고 경상남도,
자랑스런 도남사회복지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장애인활동지원사. **정순자**



언제나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이곳에서
직원으로 함께했던 기억에 감사합니다.

섬김과 사랑을 함께 누리는 나눔을 실천하는
도남사회복지관을 늘 응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이영희**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

바다에서 보트, 계곡에서
래프팅으로 즐거움을 배우고,
사회복지시설 봉사로 나눔과 사랑도 배우고,
학습 탐방으로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매진한다.

아동·청소년 문화사업



매년 진행되는 우리 시 한산대첩축제에
청소년들이 성화봉송에 참여하여
할 수 있다는 자존감 up up!

한산대첩 성화봉송



영·호남 임직원 워크숍



2011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담당하며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 도남사회복지관을 표현하면
친절과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밝은 목소리와 환한 미소가 눈에 선합니다.
이용자분들을 대하는 아침 미소가
저녁 퇴근 때까지 유지 되었던 분위기는
직원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가족이라 생각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복지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이용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열중했던 모습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짧았지만 좋은 인상과
현재 복지를 하고 있는 저의 복지 현장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준 도남사회복지관이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지역복지의 랜드마크였고
지금도 주민복지 향상의 최고 자리에 있는
도남사회복지관을 항상 응원하고
개관 30주년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전)담당자. 공강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생각나네요.

사랑과 나눔이 있기에 복지관이 함께하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돌보미가 있고,
사랑으로 어르신들에게 방문하고,
방문을 하다보니 점점 정이 들고,
정이 들다보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간절한 마음은 애절한 마음으로 변하여
현재까지 온 듯합니다.

매년 김장김치 담기에 동참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손길에 힘을 더 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생활교육으로 함께 즐기는 교육,
어르신들과 마음을 함께 소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독거노인생활지원사. 이희옥

돌보미와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일도 많았지만
복지관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해온 결과 지금도 열심히 직업 의식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정성껏 케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를 복지관으로부터
잘 다듬어져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마중물이 되는
도남사회복지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전)독거노인생활지원사. 최금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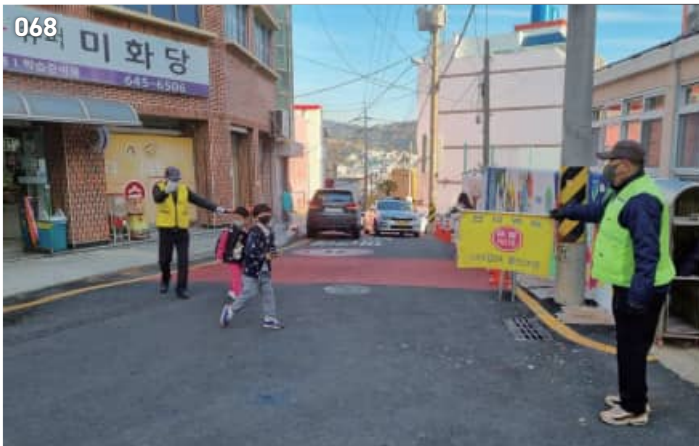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먼저 함께하여 사이좋은 이웃이 되고
회의하고 계획하여 복을 나누고
지혜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용을 베풀어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를 증진시키는 도남사회복지관은
날마다 번창하여 길이 빛날것입니다^^
(날마다 해피스마일 하세요)

노인주간보호센터
전)담당자. 서청숙



처음 시작한 사회복지박람회!
지역의 사회복지인들이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에 사회복지를 알리고 참여하는 자리였다.
처음은 항상 서툴다.
갖은 회의를 통한 계획과 수정이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은 행사였다.
충무실내체육관 외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드리면서 땀을 뻘뻘 흘린 기억이 있다.
이러한 처음이 있었기에
2024년 제15회 사회복지박람회가 가능하다.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2008년 도남사회복지관에서
1~3세대 강사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 방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을 키워본지 오래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11명이 16곳 어린이집에
1개월에 한 번씩 방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방문 수업은 동요와 손 유희(울동),
책 읽어주기(입체로 된 책) 구연동화,
인형극, 마술 놀이게임 등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손잡고 춤을 추면서 수업을 마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 손주 또래가 길을 지나가면
손이라도 잡아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 안타까운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1~3세대 강사는 매월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연습을 하고
교재를 통하여 화목한 시간 속에서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세대 강사파견 사업의
다른 모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보로로. 안성국



“주민과 함께 해피스마일한 복지마을 만들기”
미션을 너무 잘 수행하는 도남사회복지관의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아들이 복지관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특히, 1~3세대가 함께 하는 청춘마을학교,
구연동화 같은 통합 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할미 선생님들과 뽀로로 할아버지가 전해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지혜는 아이들의
감수성과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
세대 간의 아름다운 유대감도 형성해주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마련해주신 다양한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영·유아들에게 나눔과 실천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교육 프로그램도 참 소중합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영재어린이집 원장. 황경림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

기름 방제 작업을 위해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직원들과 함께 새벽에 복지관을 출발해서 힘을 더했다.

땀아도 땀아도 끝이 없었다.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 뿌듯하면서도 안타까웠다.
깨끗한 태안을 소망한다.



태안반도 기름방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활동들이
곳곳에서 생겼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를 익힐 수 있게
노력하는 손길이 많았다.
음식을 통해
자연스러운 어울림 시간을 만들었다.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도남사회복지관에서 일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함께했던 관장님과
동료, 후배들,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 하나 떠오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곳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이루어 낸 성과들은 지금도 자랑스럽게 기억됩니다.

앞으로도 도남사회복지관이 변함없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며,
더욱 풍성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곳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될 것입니다.

봉숫골축제
통영시니어클럽 관장. **서근혁**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웃사랑 실천은 가능하다.

지역자원연계



남망산 시민문화회관에서
겨울 음악회가 열렸다.

쉽게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박상민, 남궁옥분 가수를 모셨다.

가수를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고
통영의 평범한 관객들의
환호와 불빛이 지금도 가슴 떨린다.

겨울음악회





2011 - 2015

마을에서 주민되어 소통

복지관은 더 개방하고 직원은 주민이 되어
한층 더 주민과 가까이 소통했다.
소통은 이해와 공감이다.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함께
느린 우체통을 케이블카 상부에 설치했다.
케통이와 케순이는 우체통, 관광객의 포토존!

가족, 연인, 친구에게 마음을 담은 엽서는
느림과 쉼으로 바쁜 일상에서의
여유를 즐기는 통영의 관광 명소!



도남, 추억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통영 사회복지실천의 선구자로 수많은 복지사업들에 열정들을 가지고 임해왔던 도남사회복지관을 많은 주민들분께서, 또 우리 통영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직장을 도남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회복지사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큰 행운이고 참 행복이었습니다.
도남스러운, Y적 사고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복지실천들을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울고 웃으며 지역주민들분들을 만나며 받았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한끼 잘 먹고 가요." 하며 손잡아 주시던 어르신들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건 가요?" 물으며 해맑게 웃던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우리 참 잘 해내었다." 하며 서로를 격려하던 많은 하루들을 기억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대리, 팀장으로 성장하면서 추억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복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40년, 50년, 그 이상으로 지역안에서 누군가에게 참 좋았던 기억으로,
참 좋았던 추억으로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도남사회복지관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찾아가는 나눔교육
전)담당자. **공동환**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웃으면 복이온다는 말을 믿고 스마일존을 만들었다.
입주민이 하나가 되기위한
한술밥 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시작이다~~~ 행복한 우리 동네~~~

주민조직화



마중물이 되어 같이
참 좋은 동행을 하는 분들로 따뜻하다.
참 좋은 동행점 간판을
점주들에게 드린지도 10년이 지났다.
복지관과 참 좋은 이웃으로 함께한 동행이
앞으로도 늘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참 좋은 동행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길에서 뵈면 반가움으로
정감 어린 인사를 나누며
어르신들과 함께한
8년간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한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수고를 응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아갈만한 희망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전)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자. 임필순



그간 관장(館長)님의 선진적(先進的) 경영 철학과 미션(mission)을 좇아, 전 직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인간애(人間愛)로 저희 ‘한글사랑반’ 학습활동을 적극 돌봐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글사랑반’은 60대(代)에서 90대까지로 구성된, 개인 간의 ‘한글 문해력(文解力)’ 수준 차(差)가 큰 학습집단입니다.

따라서 학습 방법의 개별화 필요성을 항상 강조 ·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例)로, 거의 매일(수업일) 들여다 보는, “가갸표(한글자음모음표)”마저도 돌아서면 하루가 다르게 망각(忘覺)해 버리기 일쑤랍니다. 하지만 저희 ‘한글사랑반’ 학생들(어르신들)은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등생[만점 학생]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결코 “나이 핑계[타령]”는 하지 않는답니다. 각자의 능력껏 한글을 지혜롭게 익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 개관(開館) ‘30주년(週年)’을 맞게 됨에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성인문해교육
열린청춘학교 한글사랑반 교사. **조진규**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듯이 부족함과 넘침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30주년 개관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남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멋진 성장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열정이 50주년, 100주년 이상을 맞이하는 소통의 장소인 도남사회복지관이 될것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열린청춘학교 고운글씨반 교사. **김미숙**





통영의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으면서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봄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생명의 사랑과 행복을
이웃에게 전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행!!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재명**



따뜻한 송년 행사로 음악회를 열었다.

유열과 낭만 가득한
겨울의 정취를 느끼며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희망찬 다음 해를 기대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음악회



나눔은 행복이다.



매년 연말이면 복지관과 함께한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자원봉사자·후원자 나눔의 밤



복지관 개관 20주년이다.
감회가 남달라 정성스럽게 행사를 준비했다.
회상하면 아쉬움이 더 크지만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직원들이 있어
내일을 기약하며 파이팅 할 수 있었다.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다.

개관 20주년 나눔의 밤



복지관 개관 20주년, 새 단장을 했다.
많은 분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모든 직원과 함께
새 다짐을 했다. 더 많이 지역을 다니고,
만나고, 듣고,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새단장 기념식





2016 - 2020

마을 곳곳으로 찾아간 동행

온 마을이 도남사회복지관!
복지가 필요한 주민들과 가까운 곳곳으로 찾아간다.
집, 공원, 골목길, 정자, 사업장, 학교 등



나눔공감학교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학교였습니다. 진로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뚜렷하게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눔공감학교는 사회복지사라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두려움, 오해들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겸 도남사회복지관에 방문하면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의 대화, 필요 자격증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눔공감학교에서는 여타 봉사활동과 다르게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드리며 ‘나눔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는 봉사활동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교를 통해 느꼈던 보람과 나눔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해 공부중이며 도남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와 나눔을 배울 수 있었던 곳에서 실습을 할 수 있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값진, 의미 있는 시간이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도남사회복지관이 키워낸 사회복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배우고 나눴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훗날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나눔공감학교
참여자. 박기태



‘좋은 글’을 마을 곳곳 이웃에게 나누었다.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해” 라며 안아주세요.
서로 안고 안김으로 평안함을 느꼈다.

‘스마일 쓰레기통’을 동네에 설치했다.
쓰레기를 잘 버려 거리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지역복지운동



2017년 초등학교, 중학생으로 처음 만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복지관과 함께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꿈을 찾아가고,
그 꿈을 9년간 응원한다.
지금도 좌충우돌 꿈꾸는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한다.

꿈꾸는아이들



나눔이 행복한 것이 마을 곳곳에 있다.
행복 가득한 마을 속에 우리가 있어 행복하다.

나눔은 행복이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식사를~
지역주민에게는 소통과 나눔을~
어린이들에게는 소중한 꿈을~
중·장년층에게는 배움의 장을 만드는 소중한 곳
도남사회복지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상들 프로젝트
전)조리사. 박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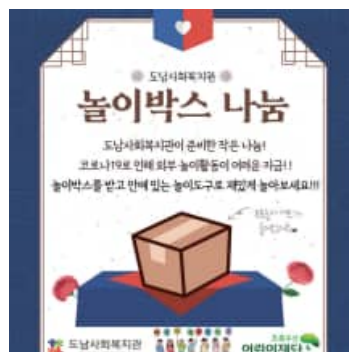
복지, 일자리, 보건 상담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번거로움을 줄인다.
주민들과 일상에서 함께하기 위해 마을로 나간다.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었다.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발도 묶였다.

엄마, 아빠, 형, 누나와 함께 집에서 놀 수 있는 놀잇감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비대면 놀이터



노인일자리로 인연이 되어
도남사회복지관에서 봉숫골 1004로
5년 넘게 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을꿈터에서 마을주민들은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곳은 어찌나 열정이 넘치던지~~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이 되어도
끄떡없이 한결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 파이팅!

마을꿈터
봉숫골 1004 조장. **김갑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주신
도남사회복지관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마을꿈터
주택관리공단 도남관리소장. **제승란**



통영서울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도남사회복지관과 통영YWCA와 맺은 인연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본원과 통영라이온스클럽과의 반찬사업 동참,
복지관 내 무료진료 등 소중한 행복한 기억이 납니다.

눈부신 30주년을 바탕으로 향후 100년의
통영대표 “복지의 성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역자원연계
통영서울병원 행정원장 류정훈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지역자원연계



처음에는 많은 것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언제부터인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

나눔의 두드림! 미리 산타 해피박스
나눔은 행복이다. 무지개 물고기
나눔을 말하다. 만나다. 나눔 BOOK
도남, 마을을 그리다. 해피박스

자원봉사자·후원자 나눔의 날





2021 - 현재

주민과 함께 해피스마일한 복지마을

마을 곳곳에서 주민과 만남이 해피스마일~^^

개인의 스마일과 스마일이 모여
주민과 함께하는 해피스마일한 복지마을을 꿈꾼다.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게 해준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할미선생님. **박부계**

우리 담당 선생님과 복지관 나이가
비슷한지 몰랐네요.
생각보다 오래된 도남사회복지관
30주년 축하해요.
할미선생님. **김경자**

아이들을 좋아해서 무턱대고 시작한
청춘마을학교 할미선생님,
벌써 3년차가 되었네요.
뒤돌아보면 한없이 빠른 세월이 야속합니다.
30년이 지나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남사회복지관도 대단합니다.
할미선생님. **서말연**

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젊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젊어져서 오래오래
도남사회복지관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할미선생님. **정춘자**

한 달에 열 번 복지관!
오는 날마다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고 또 오고 싶은 곳입니다.
혼자사는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심심한 일상에 활력을 넣어준
도남사회복지관에 감사합니다.
할미선생님. **이봉수**

아이들 만나는 것도 좋고
할미 선생님들 보는 것도 좋고
담당 선생님도 좋고
다 좋은 도남사회복지관!
할미선생님. **고순악**

내가 할미 선생님이로
활동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했는데
같이 하는 할미선생님들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미선생님이로 활동 할 수 있게 해준
도남사회복지관 감사합니다.
30주년을 지나 40, 50, 60주년도 이어나가세요.
할미선생님. **김덕재**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유아교육현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퇴사 후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도남사회복지관에 채용되어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도와주려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청춘마을학교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아동 복지를 배웠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복지를 하며 지내기위해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한 나눔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청춘마을학교
전)신중년일자리 참여자. **최인수**





새로운 도전으로 1년 동안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마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봉평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무서워 이곳을 지난 큰길로 돌아가곤 했는데
지금은 너무 환해지고 예쁜 벽화들로 인해
많이 밝아졌습니다.

주어진 1년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 하던 일상에서
어르신들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어르신들도 너무 예뻐해 주십니다.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했듯이
30주년이 된 도남사회복지관은 더욱 더
많은 변화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저와 같은 지역주민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전)신중년일자리 참여자. 김영자



사랑아! 왜불러요?
내 소원 들어줘!
어떤 소원?
복지관에 가고 싶어~!
복지관과 사랑하고 싶어...
(사랑이 넘치는 곳 도남사회복지관!!!)



동백 이야기 '골목길 벽화'
꿈틀꿈틀 마을선생님. 박영희



이웃을 살피는 일이 멀리 있지 않고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걸
같이 일하는 동안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미소를 잃지않고
발전하는 도남사회복지관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농촌 신활력플러스
전)조리사. 김미라



통영관광개발공사 - 스마일 우산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함께한 공유 우산인 '스마일 우산'~~
오는길 가는길 함께 사용하는 노란 우산이 웃게 만듭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곁에서 늘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삶의 희망과 기쁨을 나누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이뤄진 작은 나눔과 큰 사랑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자취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오늘의 도남사회복지관을 만들었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정이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큰 도전과 성장을 이루어 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통영YWCA 성폭력상담소장. 이정숙



‘꿈꾸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소감은 정말 특별하고 의미 깊었습니다.
 나 자신이 꿈꾸는 가치와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을 참여하면서 제 꿈은 현재와 달랐지만 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꿈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은 꿈은 단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작은 행동과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며 도전적인 태도와 모습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스스로의 꿈과 목표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났던 선생님, 작가님처럼 옆에서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하기 힘들었을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고, 그 모습에서 많은 용기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많은 가르침과 기쁨이었고,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꿈을 키워준 친구들, 복지관 선생님, 작가님 등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꿈지원
 참여자 **김유미**



한산신문과 함께 어르신들이 무지갯빛이 되었다.
 같이 울고 웃으며 이웃에 사는 사촌이 되어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함께 하는 이웃이 있어 즐겁다.

한산신문 - 레인보우



아이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즐겁다.
마을 어디든지 놀이터가 된다.
물총 놀이, 물 놀이, 풍선 터뜨리기, 피구,
불빛 놀이, 야외에서 영화 보기 등
함께 어울림이 즐겁다.

집 근처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이 만나고,
해지는길 모르고 놀고,
간식을 먹고 함께 어울린다.
건강하게 잘 노는 아이가 잘 자란다.

모두가 신나는 놀이터





주민과 함께 해피스마일한 행복마을만들기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고중 최고는 1세대의 존엄한 삶을 도우면서
3세대 영유아들의 건강한 정서발달과
언어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1-3세대 강사파견사업이라 하겠습니다.

10년전 봉사를 통해 만난 교양있고 품격있는
구연동화 할머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인자하신
할머니 선생님은 통영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구연동화와 동요, 율동과 레크를 통해
행복한 상호작용과 협력 그리고 소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화를 들려주는 할머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좋은 사람 바로 할머니,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자비와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도남사회복지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통영 최고, 전국 최고가 되는 해피 스마일한 복지관으로
만들어나가기 바랍니다.

도남사회복지관어린이집 원장. **공혜나**

현재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다차원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14여년 전 복지관과의
인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때의 시간과 경험이 아동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공부방 강사로 아동들을 처음 만났던 첫 수업의 걱정과 설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선생님~ 하며 가르침을 구하던 아이들의 시선과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방을 통해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던 복지관
공부방을 통해 저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해 주었던 복지관

이후 후원자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 담당자로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30주년을 맞이하는 복지관의 성장과 발전에도 후원자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전)방과후 공부방 강사. **임화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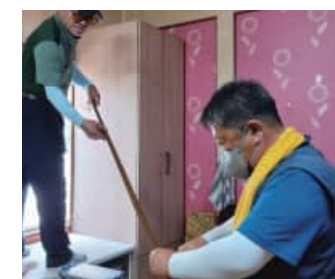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관은 지역 내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확인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진로를 변경하여
현재 사회복지학과 재학중입니다.

희망나눔 통합돌봄
전)사회복무요원. **구성모**



2년간 주거돌봄지킴이로 활동하며
많은 봉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기사로 근무하다
낙상사고로 중증 외상환자를 배우자로 둔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3년째 누수로 인해 안방불이 고장난채로 지내시다
사업을 신청했고 현장방문 6시간 동안의 작업 끝에
전등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었고
지금도 지나가다 만나면 그때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안전한 우리집 · 수리대장간
주거돌봄지킴이. **신용식**





어깨동무는 서로서로 의지하게 만든다.
우리 지역을 나눔, 공유, 동행으로 나누었다.
도천동, 미수동, 봉평동, 산양읍, 욱지면 나눔!

소소한 나눔으로 확실한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
민과 관이 어깨동무를 한다.

어깨동무 네트워크



2023년 6월은 뜨거웠지만 아름다웠다.
2박 3일 청소년들이 국토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연천-철원-서울 60Km를 완주했다.

선서!
나는 나와 내 친구들, 우리 모두의 꿈을 생각하며 걷는다.
때론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 하고 싶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주하며
이 힘으로 앞으로 내가 만날 세상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힘들어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번 대장정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발이 아파서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걷고,
서로를 응원하니 저 혼자 포기할 순 없더라고요.” “함께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 국토 대장정



더 많은 도전과 변화를
더 많은 이웃을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는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9년 도남사회복지관 마중물 제작으로 첫 인연이
시작되어 현재 2024년 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인디자인은 도남사회복지관과 함께 성장했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을로 찾아간 전시관
후원자. **주은아**

벌써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나 봅니다
전통깊은 도남사회복지관 봉사자님들 축하드리며
앞으로 주욱 300주년 기대합니다.
변하지 않은 봉사자님들 제일 멋져요 파이팅입니다!
행복위원회 총무. **김전옥**

행복위원으로 봉사한지 5년 정도 되어가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뭘 하는지
감도 안오고 잘 몰랐는데 여러 차례 봉사를 하면서
정말 보람도 느끼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위원회도 10년~20년 ~쭈~욱 이어져서
30주년에 축하행사를 한번 하고싶네요.
행복위원. **정상엽**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좋습니다.
행복위원. **박명순**

축하~축하~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한결같은 도남사회복지관 되세요.
행복위원. **우혜정**

우리 복지관이 벌써 30주년 입니까?
세월이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늘 이웃들에게
사랑과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뻗어주는
도남사회복지관 감사합니다.
행복위원. **고부돌**

올해 처음으로 복지관에서
행복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위원. **최창조**

도남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정성을 다해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이 30살이나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50주년 100주년 쭈~욱 함께 했으면 합니다.
행복위원. **문현식**



주민자조집단 '행복위원회'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은 도남사회복지관과 함께합니다.

가까운 이웃으로서 지난 7년간 복지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쏟아진 노력과, 수많은 삶에 매일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역시 도남사회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께 웃음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무료 티켓 후원부터 지역 노인을 위한 자선 행사까지, 함께 협력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지원하기를 바라며, 그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자원연계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팀 일동



주민행복 공동체, 도남사회복지관의 30주년!

통영서울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도남사회복지관·통영YWCA와 맺은 인연을 매우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본원의 세번째 행동강령인 “지역사랑 실천”보다 훨씬 더 높은 실천의 경지인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돌봄 복지마을, 참여하는 공동체 복지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는 도남사회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한 귀 기관의 30주년은 우리나라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의 일정부분 책임과 의무로 다져 오신 값진 세월이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복지관과 본원 그리고, 통영라이온스클럽과의 반찬사업 동참, 무료진료 등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도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좋은 이웃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따뜻하고 성숙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주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의 눈부신 30주년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100년의 통영대표 “복지성지”로 거듭나고 다시한번 더 재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지역자원연계
통영서울병원 병원장. 오원혁



스마일~~데이~~
함께하는 감사한 분들을
스마일 가득한 곳으로 초대했다.
마을 주민들도 환영한다.

10년 동안 함께한 동행점 점주들에게 스마일 액자를
만들어 감사를 전했다. 참 좋은 동행이다.

참여로 하는 나눔에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셨다.
마을 벽화를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Happy Smile Car를 타고 도시락을 전했다.
복지관 차는 언제나 'Happy Smile Car'

자원봉사자·후원자 나눔의 날

2024년 주요사업 보고

- › 복지관 소개
- › 해피스마일한 열두 가지 소식
- › 프로그램 한 눈에 보기



도남사회복지관

미션 주민과 함께 해피스마일한 복지마을 만들기

성장

함께 배우는 성장 복지마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참여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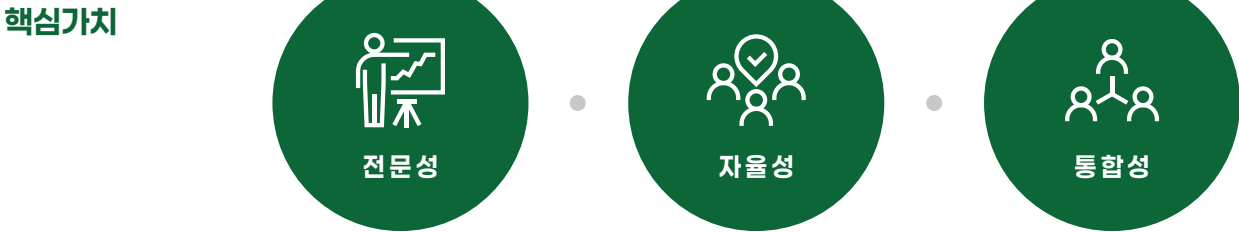
함께 안전한 돌봄 복지마을

지역사회 내 돌봄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전망 마련

공동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복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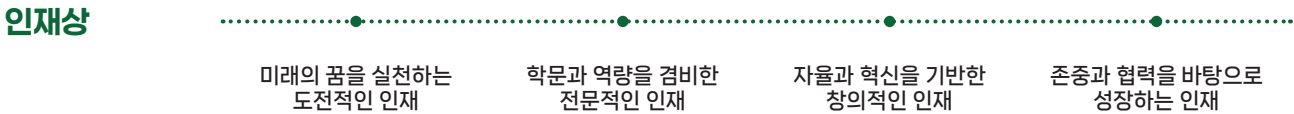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주도



이용대상 지역주민

운영법인  사단법인 통영YWCA

슬로건 Happy Smile (해피스마일)



추진과제

함께 꿈꾸는 성장복지마을	함께 돌보는 안전복지마을	함께하는 공동체복지마을
- 마을 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 마을로 나가는 나눔교육 - 기후 위기 대응 환경교육 - 꿈 지원 다양화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반 마련 - 지역주민 복지욕구에 따른 일상행활 지원 -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기회제공	- 성장과 변화를 통한 주민조직화 - 주민주도형 사업확대 - 주민 주도적 참여기회 제공 - 주민과 조직의 성장을 통한 의식 변화

2024년 외부지원사업

2024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시범사업	품품UP 성장터	동백꽃피는 데메마을 당산나무 이야기
- 내 용 주거환경·일상돌봄·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등 - 대 상 도천·명정·중앙동 돌봄이 필요한 세대 - 지원처 경상남도·통영시 - 지원금액 127,000천원	- 내 용 느린학습 아동 학습지원·사례관리 - 대 상 초등학생 - 지원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원금액 21,284천원	- 내 용 마을 벽화체험 및 전시 - 대 상 지역주민 - 지원처 통영시 - 지원금액 7,000천원
나와 이웃의 발견, 함께 나누는 마을	열린청춘학교-한글교실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 내 용 어깨동무 네트워크 나눔권역 특화사업 - 대 상 1인가구 중장년층·경로당 - 지원처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원금액 8,000천원	- 내 용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대 상 비문해교육 학습자 - 지원처 통영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지원금액 16,000천원	- 내 용 놀이중심 환경교육 - 대 상 초등학생 - 지원처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원금액 12,000천원

해피스마일한 열두 가지 소식

1월

우리동네 행복릴레이



KTC원광태권도에서 쌀과 라면을 트리형태로 만들어 원내에 전시, 이번 활동으로 수련생에게 나눔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수련생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도남사회복지관에 전달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 70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2월

유아 나눔 교육 나눔 1004 릴레이



영유아 보육시설과 협력하여 어린이집 원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나눔 복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눔 1004 릴레이』에 동참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필요한 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3월

지역사회 맞춤형 지지체계 구축



지역 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의 능력을 높이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성도 높일 수 있도록 피자만들기, 화분만들기, 숲 체험활동, 우리 마을 관광지 둘러보기 등 다양한 참여·체험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즐거운 학습과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건강한 성장,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4월

똑딱똑딱 수리 대장간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운영되며, 당산나무 복합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마을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수리 활동(시계, 화분, 전자 제품, 컴퓨터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가까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며,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5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신규 사업단
장애인활동지원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노인일자리 '초록 환경지킴이' 사업이 미수휴먼시아 단지내 재활용 분리배출소에서 진행중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6월

행복나눔장터



통영수도센터와 연계하여 행복나눔장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야채값이 폭등하여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마음이 힘들어하는 욕구를 파악하여 비싼야채를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는 진행하였습니다. 비싸고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니 구매하는 주민들도 만족해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7월

동백꽃피는 데메마을 당산나무 이야기



데메마을 당산나무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벽화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산나무의 기운을 모아 '희망을 말해봐'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과 하트고리펜던트에 희망을 적어 달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자발적 참여자들이 작품을 완성하고 마을로 찾아간 전시관을 개최하여 뿌듯함을 표현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8월

사회복지 종사자 네트워크 모임



복지관 인근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무자 8명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분기별 소진예방 활동으로 희망 주제를 선정해 활동했습니다. 8월 주제는 매번 아동들과 함께 체험하거나, 아동들을 위한 요트 투어는 참여해봤지만,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여가 활동으로 요트투어를 해보지 못했다는 의견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트도 타고 인근 섬에서 바다수영도 즐기며 조금이나마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힐링 여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9월

나와 이웃의 발견, 함께 나누는 마을



어깨동무 네트워크 '나눔권역(산양읍, 옥지면, 도천·미수·봉평동)'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세대 청소 및 방역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9월부터는 권역별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양말목 냄비받침을 만들고 점심 식사를 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0월

환경감수성을 키우는 지구를 지키는 놀이터



미래세대 아이들과 함께 환경과 놀이를 주제로 지구를 지키는 놀이터 행사를 즐겼습니다. 공기정화 식물 심기, 병뚜껑 활용 키링, 장난감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플라스틱으로 오목, 알까기, 볼링과 같은 재미있는 놀이도 친구들과 즐겼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 동물을 찾는 보물 게임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면서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날 한려초등학교 교장·교감선생님도 오셔서 우리가 꿈꾸는 바다 포토존을 아이들과 함께 완성하고 영화도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사진으로 만나는 통영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협력을 통해 사진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통영의 다채로운 매력을 사진으로 담아내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통영시민들의 따뜻한 모습과 사회적 가치를 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통영에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주제로 통영의 자연경관과 관광·여행을 담은 '관광 부문'과 통영 시민의 화합과 배려를 담은 '복지 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5주간 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17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통영 리스 타트플랫폼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어 통영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통영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12월

통영다움 희망나눔 통합돌봄



2024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 6월 도천·명정·중앙동 150명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매주 돌봄활동가님들이 안전확인을 전하는 '안부천사', 결식 우려가 있는 1인가구 취약세대에 밑반찬을 전하고 영양제를 전달하는 '장수밥상' 등 일상돌봄 영역에서 매주 90여세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주거 안전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세대에 직접 찾아가는 '안전한 우리집'과 '클린버스'로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영역과 서비스연계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촘촘한 돌봄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한 눈에 보기

단위사업	사업명 (프로그램명)			서비스 내용
가족기능강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세이상~65세미만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 기타) 활동
지역사회보호	참 좋은 경로식당			65세 이상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주5회, 공휴일제외)
	참 좋은 식사배달			65세 이상 결식우려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식사배달 진행(주5회, 공휴일포함)
교육문화	유아	나눔 1004 릴레이	나눔 1004릴레이 100원의 행복	일시나눔교육, 100원의 행복 저금통 모금, 모금된 수익금 지역민들과 나눔활동
	아동·청소년	꿈꾸는아이들	꿈꾸는아이들 3기	자아탐색교육, 비전원정대, 특별활동(국토대장정, 여름캠프 등), 보호자 활동(교육, 자조모임) 꿈지림금
			꿈꾸는아이들 6기	
		모두가 신나는 놀이터	마을놀이터	지역 내 아동 누구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놀 권리 증진 신체·체험놀이 활동 진행
			여기모여 놀이터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참여 기관별 하고 싶은 놀이와 먹거리 주제를 선정하여 함께 진행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세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표현과 행동을 실천
			하늘색을 돌려주세요	아이들의 주도적 캠페이너 활동 진행 (용기내 캠페인,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잔반 줄이기)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화 행사 개최 (해변정화 활동, 체험부스 운영, 작품 전시)
		우리마을 여기어때		지역 내 청소년들이 우리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마을의 강점을 찾아내고, 우리지역의특성을 이해하여 직접 소개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
		꿈꿈UP 성장터	꿈꿈한 학습	1:1개별 맞춤 학습지도, 가성학습과제 등
			꿈꿈한 전시회	사회적응력 프로그램 (사진·그림 등 활동 내용을 담은 전시회)
			꿈꿈한 이야기	아동상담, 가정상담, 연계기관 네트워크 회의, 외부 수퍼비전
		진로체험 지원 꿈길		사회복지사 직업에 대해 관심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에 도움 이해할 수 있는 진로체험·교육
	노인	열린 청춘학교	한글교실	한글공부, 도서관방문, 건강문해교육, 문화체험, 시화전등 다양한 활동진행
		세대통합 청춘마을학교	나도 할머니선생님	어르신들이 선생님이 되어 참여아동들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활동 실시, 진행 장소 정비 및 텃밭 관리
			누코입귀손 오감교실	회기별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진행 (청초, 전통교실, 만들기 및 체험 활동, 신체놀이 등)
			상상돌 텃밭활동	상상돌 텃밭을 대여해주고 할머니선생님과 작물을 심고 수확하기까지의 전반적 과정 함께 진행
		여가그가 어르신 놀이기 마실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운영 (놀잇감 대여 및 반납, 마실 책방, 놀이한마당) 매주 목요일 건강&힐링 프로그램 진행
		기억속의 숨은 이야기 찾기		봉평동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만드는 활동
	지역주민	지역문화 행사		사회복지박람회 체험부스 참여
		마을로 나온날		다양한 문화체험 및 전시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독딱독딱 수리대장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수리(시계, 화분, 전자제품, 컴퓨터 등) 활동
		봄내는 마을전시관		주민들이 봄내고 싶은 다양한 주제로 전시, 감상 할 수 있는 마을 전시 공간 마련
		시골벽적 나눔 한마당		지역 내 복지시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서비스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3세대강사파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동화구연 미 율동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 진행
		우리동네 플라스틱자원순환단		재활용가능자원을 위한 플라스틱수거,선별,정리 활동, 제로웨이스트 실천 환경캠페인
		스쿨존교통지원		등·하교시간 스쿨존 내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진행
		학교급식도우미		학교급식배분 및 정리 등의 업무 보조 활동 진행
		우리동네지킴이		관광시설(동영관광개발공사, 동영관광정보센터) 및 봉평동 내 공공시설 주변관리 및 환경정화 활동 진행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사례발굴		정기적인 사례회의의 진행 및 서비스연계
		사례개입		사례관리자 역량강화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진행
		서비스연계		외부관계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의뢰 및 혁신
	재가복지서비스	정서지원		명절(설, 추석) 음식과 선물 지원
		동백꽃 건강충전소		65세이상 정신건강 위험군의 건강집중관리와 걷기 및 체험활동
		동백꽃 배란다 농부		식물재배를 통한 보람과 성취감, 기초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어깨동무 네트워크		나눔권역(산양읍, 옥지면, 도천·미수·봉평동)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 어르신들과 공예활동 및 식사를 통한 소통기회마련
		경제적 지원		지역 내 후원에 관심 있는 기관, 단체등의 후원물품을 취약계층 세대에 지원
		일상생활지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마용서비스 및 이용자 욕구에 맞는 생필품 지원
		가사지원		이용자 욕구에 맞는 먹거리(반찬, 영양죽, 김장) 지원
		소소한일상 소중한일상		공예·작품만들기 자조모임 및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재능기부 활동 진행

단위사업	사업명 (프로그램명)		서비스 내용
희망나눔 통합돌봄	일상돌봄	안부천사	주1회 건강음료, 안전용품 등 제공, 안부확인
		찾아가는마을복지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로당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지원
		장수밥상	주1회 일반찬 서비스 지원
			추석맞이 명절음식 지원
			기초영양 상담을 통한 영양제, 맞춤형 먹거리 지원
			위생상담을 통한 맞춤형주방용품 지원 (조리도구, 주방용품 등)
		우리동네이불빨래방	스스로 세탁이 어려운 대상 월1~2회 수거하여 세탁·건조 지원
		반려식물 및작물키우기	가정 내 식물재배 키트 제공, 반려식물 재배, 주1회 정기적 안부확인
	주거·환경	안전한우리집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 및 경수리 지원 (안전 손잡이, 가스차단기, 수도꼭지, 방충망, 문손잡이 등)
		찾아가는 집정리클린버스	저장강박 등 주거공간 청소, 방역폐기물 처리, 정리수납, 소규모수선, 필요물품 구입 등
	보건·의료	찾아가는 건강자킴이	간호인력이 건강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혈압혈당 체크, 약물지도
		맞춤형 건강케어	관내 병원과 협약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지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퇴원환자의 일상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료품, 건강용품 등 맞춤형 돌봄키트 지원
	통합돌봄 인프라구축	통합돌봄센터운영	케어매니저 채용으로 통합돌봄 사업의 전체 사업추진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통합돌봄창구운영	케어상담 및 안내창구 운영
		돌봄활동가운영	지역돌봄 인프라 구축 (돌봄활동가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등)
		통합돌봄 전수조사	통합돌봄 대상 집단 현황파악, 욕구조사 진행으로 필요서비스 제공
주민조직화 사업	이웃이 가족되는 정겨운 마을만들기	주민활동	주민회의, 역량강화교육, 선진지견학, 환경정화활동 진행
		마을공동체 사업	떡국 나눔 행사, 정월대보름부럼나눔, 추석맞이 물품지원, 동지팔죽 나눔활동 진행
		스마일마켓	자원을 재활용하여 연 6회 바자회를 진행
		정이 넘치는 나눔반찬	참 좋은 동행점 후원자가 준비한 음식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나눔활동
		카네이션 정 나눔데이	가정의달 5월에 자원을 연계하여 나눔활동 진행
		행복산타	주민활동가들이 그룹홈을 방문하여 동절기 물품지원
	이웃이 가족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키친가든	봉수골 일대 휴경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활동 진행
		행복나눔장터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작은 시장을 열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해피스마일데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힐링체조와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
	동백꽃피는 데메마을 당산나무 이야기	동백클래스	그림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주 1회 복지관 교육실에서 그림그리기 활동 진행
		희망을 말해봐	당산나무에서 주민들이 하트그리에 희망을 적어 직접 달고 소원빌기
		동백꽃피는 데메마을 벽화 체험	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및 자발적 참여주민들과 벽화그리기 체험활동 진행
		마을로 찾아가는 전시관	참여 회원들이 준비한 작품을 당산나무복합문화공간에서 전시
자원개발	참 좋은 동행 모집 및 관리	참 좋은 동행점 운영관리	신규 동행점 협약체결, 동행점 운영관리(매일, 모금액 수거 등), 감사편지·복지관 소식지 발송 등
		참 좋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명절 감사품 전달 및 언론홍보
		네트워크 연계사업	가구를 만드는사람들 수익금 1% 매월 수령, 스카이라인루지통영 무료 탑승권 수령 및 기타 사회공헌, 동영관광개발공사 사회공헌 활동(스마일우산캠페인 등)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및 전시회	도남사회복지관 연혁별 주요사업 보고 및 작품 전시
	후원자 모집 및 관리	후원자 모집 및 관리	신규 후원자 모집·홍보·개발, 후원자 관리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및 전시회	도남사회복지관 연혁별 주요사업 보고 및 작품 전시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활동 관리
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네트워크 모임	정기모임	주기적 정기모임을 가지며 업무관련 소통과 기관별 논의사항 공유, 기타 사항 이야기 나눔
		소진예방활동	업무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희망하는 다양한 활동을 논의, 선정, 계획하여 함께 참여 및 진행
	실습지도	하계사회복지현장 실습	지역 대학교들과 연계하여 4주간(160시간) 하계 사회복지현장 실습 진행

참 좋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 ▶ 자원봉사자
- ▶ 후원자

자원봉사자 명단

2000년 - 2024년

강가영	강경미	강경아	강기혁	강기현	강남준	강다경	강다운	강동국	강동균	강동완
강명운	강미선	강민경1	강민경2	강민정	강민주1	강민주2	강복미	강석일	강성순	강수빈
강수진	강숙희	강신선	강연화	강영주	강영현	강옥금	강옥수	강옥주	강윤주	강은지
강재현	강정남	강정미	강정화	강종호	강주승	강주언	강지영	강지환	강지훈	강태권
강 한	강현지	강현진	강혜숙	강혜원	강희재	강희준	고가영	고고은	고권수	고규민
고도현	고동우	고동현	고려진	고민서	고민정	고병은	고병희	고우정	고원자	고유림
고인서	고재경	공다윤	공민경	공윤주	공혜나	곽나영	곽성환	곽수진	곽영화	곽은영
곽지현	구가영	구경화	구난영	구성모	구예림	구춘애	구희빈	권경달	권다영	권미영
권선미	권영석	권정은	권현민	권현숙	금지윤	길재영	김가빈	김가현	김강휘	김건희
김경로	김경리	김경민	김경섭	김경옥	김경호	김경희	김광연	김광한	김광희	김국근
김근령	김금순	김기리	김기환	김나영1	김나영2	김나영3	김나영4	김다솔	김다솔	김다혜
김 단	김대훈	김도경	김도현	김 동	김동영1	김동영2	김동완	김동원	김동환	김료희
김말순	김명선	김명숙	김명준1	김명준2	김묘수	김무자	김문숙	김미란	김미성	김미옥
김미주	김미진	김미희	김민경1	김민경2	김민구	김민서	김민석	김민수	김민아	김민영
김민영2	김민재	김민정1	김민정2	김민정3	김민정4	김민제	김민주	김민준1	김민준2	김민지
김민지2	김민지3	김민희	김병주	김보람	김보성	김상순	김상오	김서연1	김서연2	김서영1
김서영2	김선희	김성경	김성모	김성민1	김성민2	김성언	김세진	김세현	김소정	김소희1
김소희2	김소희3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1	김수진2	김수희1	김수희2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솔기	김승민	김승빈	김승재	김승현1	김승현2	김승현3	김시호	김아라	김애례	김양현
김여경	김연옥	김연진	김연화	김 영	김영래	김영문	김영숙1	김영숙2	김영순	김영자
김영주	김예림	김예설	김예은	김예진1	김예진2	김옥춘	김옥희	김용득	김용운	김용환
김우혁	김원숙	김유미1	김유미2	김유진1	김유진2	김유찬	김유화	김윤건	김윤서	김윤희
김은경	김은서1	김은서2	김은자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1	김은희2	김인경	김인수1	김인수2
김인숙	김인자	김재민	김재선	김재숙	김재언	김재영	김재인	김재진	김재혁	김전옥
김점옥	김정난1	김정난2	김정림	김정미1	김정미2	김정빈	김정사랑	김정숙	김정순	김정연
김정옥	김정우	김정원	김정은	김정화	김정희	김종진	김종혁	김종현	김종호	김주은
김주인	김주현	김주형	김주환	김주희	김준호	김지민1	김지민2	김지수	김지우	김지원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	김진숙	김진형	김창민	김채린	김채희	김철수	김철순
김철홍	김태리	김태언	김태진	김태철	김태현	김태훈1	김태훈2	김태희	김판숙	김하나
김하늘	김하린	김하은	김한영	김한진	김해령	김해원	김해인	김해진	김현교	김현권
김현빈	김현수1	김현수2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준	김혜경1	김혜경2	김혜란	김혜빈
김혜성	김혜영	김혜진1	김혜진2	김화영	김효상	김효예	김희선	김희현	나희숙	남남선
노강배	노광옥	노미경	노신영	노예인	노혜정	류건길	류 민	류순자	류승민	류승지
류은혜	마가영	마예진	마운영	문가희	문경규	문경조	문남숙	문성희	문수아	문순주
문연우	문영미	박건률	박경아	박균영	박근영	박근태	박기태	박기환	박나현	박대웅
박덕수1	박덕수2	박동숙	박동영	박동자	박말숙	박말애	박명숙	박명순	박명애	박문빈
박미경	박미선	박미숙	박민경	박민주	박민준	박민한	박민혁	박봉자	박상희	박서준
박선규	박선희	박설빈	박세영	박세은	박소미	박소민	박소은	박수동	박수빈	박수진
박순모	박순생	박순천	박시원1	박시원2	박영미	박영빈	박영주	박영훈	박영희	박원구
박유민	박은교	박재민	박재영	박재환	박정구	박정삼	박정용	박정우	박정현	박정실
박제이	박종곤	박종운	박주현	박지수	박지인	박지현	박지혜	박진서	박진수	박진실
박진위	박진희	박차철	박채린	박채원1	박채원2	박춘선	박현숙	박현영	박현정	박현지
박현희	박혜진1	박혜진2	박효선	박희숙	박희준	박희진1	박희진2	배경열	배교진	배도현
배우현	배진화	배혜수	백나리	백나림	백부자	백수원	백수진	백주영	백지수	백지운
백현건	백현주	변가영	변영빈	변은채	변정원	부호선	서동우	서동우	서두호	서민경
서상준	서수민	서진영	서여준	서영민	서예원	서예준	서유진	서윤정	서인영	서차야
서장진	서점옥	서정수	서정철	서지선	서지성	서지연	서지우	서진원	서정숙	서추자
서형심	서혜령	선도연	설예진	설용진	설유정	설진희	성민지	성수정	성영자	성우경
성유리	성주영	성지나	성채빈	소민태	손강희	손기범	손승현	손여진	손영옥	손영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9명이 봉사활동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유로 2000년 부터 현재까지의 자원봉사자만 게시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유진	손진희	손태영	손하늘	손혜경	송소연	송소이	송솔기	송연우	송용삼	송지빈
송지혜	송채원	신경남	신광호	신길순	신동순	신돌복	신민우	신상빈	신상호	신생금
신승근	신재혁	신종호	신지아	신지원	신진영	신진화	신창호	신해용	신현옥	신화진
신호경	심지민	심진보	심호진	아채훈	안나경	안다은	안명숙	안미정	안선종	안성국
안세현	안영서	안지성	양상화	여경진	여상민	여송심	여주영	여호성	염정현	오기주
오연지	오임숙	오지은	오진주	오희철	옥다슬	옥사무엘	옥예슬	옥유지	옥윤복	옥윤희
우경호	우승희	우윤재	우종범	우하나	우희재	유귀선	유동현	유랑희	유명안	유민수
유민주	유민혜	유복실	유상정	유 성	유성아	유승태	유승환	유아연	유영옥	유원규
유운서	유재자	유재혁	유정민	유종규	유종현	유준호	유진영	유채원	유태하	유태희
유현도	유혜숙	유호성	윤경희	윤성민	윤성형	윤소정	윤승삼	윤유은	윤이삭	윤정자
윤준영	윤현우	이갑성	이갑열	이건임	이건호	이경돈	이경아	이경주	이경진	이경철
이교원	이기아	이나경	이나원	이다경	이다민	이다연	이다해	이대근	이도윤	이동건
이동윤	이동현	이동환1	이동환2	이동희	이무숙	이무형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숙	이미지
이민기	이민준	이민철	이병연	이봉수	이상돈	이상엽	이상태	이상화	이상훈	이서현
이선경	이선민	이선옥	이선주	이성옥	이성주	이성진	이성호	이세희	이소방	이소이
이수정	이수찬	이슬희	이승은	이승준	이승준	이승천	이승호	이승후	이시영	이신후
이애림	이연미	이영남	이영미	이영원	이영주	이영희	이예린	이예원	이예진	이용재
이원경	이원숙	이유남	이유림	이유진1	이유진2	이유한	이윤선	이윤자	이은수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은혜	이은호	이재경	이재성	이재형	이재훈	이정민	이정은	이정화
이정훈1	이정훈2	이종란	이종순	이지민	이지빈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1	이지영2	이지예
이지윤	이지은	이진수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 찬	이찬양1	이찬양2	이찬은	이찬희
이창훈	이초희	이태영	이하진	이한규	이한솔	이해인	이현빈	이현영	이현옥1	이현옥2
이현준	이형윤	이혜린	이혜연1	이혜연2	이혜정	이호근	이호민	이희수	이희순	이희옥
이희재	임가영	임경순	임상한	임선빈	임소영	임소원	임윤지	임은지	임정현	임종돌
임주현	임지예	임창순	임하연	장문정	장석우	장성동	장성범	장성희	장연옥	장옥균
장옥찬	장유진	장은선	장철승	장하숙	전민주	전소민	전수민	전승미	전연지	전용환
전유진	전인숙	전재양	전준용	전창환	전희원	정경옥	정고은	정길선	정다은	정동희
정명선	정명신	정미옥	정미화	정 민	정민준	정민지	정복순	정성윤	정세현	정숙미
정순용	정안채	정양수	정연선	정영훈	정예진	정용태	정욱호	정원빈	정원진	정원희
정유림	정유진	정윤지	정윤희	정은호	정의혁	정재훈	정준수	정지윤	정진석	정창수
정채원	정채은	정태식	정태욱	정태윤	정태준	정하연	정혜숙	정효빈	정휘진	정희영
정희정	정희진	제경화	제구름	제남모	제동우	제수예	제애나	제채현	조근자	조근학
조대현	조미현	조민경	조민서	조민솔	조상현	조서영	조성민	조성빈	조성하	조소민
조연우	조영순	조영주	조옥미	조옥빈	조은솔	조은수	조은지1	조은지2	조은혜	조이주
조재흥	조진규	조현우	조현옥1	조현옥2	조현재	조현정	조현준1	조현준2	조형구	조혜경
조혜진	조혜현	조효진	주나경	주민규	주언지	주연화	주영선	주지연	주현경	지민성
진성수	진영애	진용우	차대휘	차미경	차수민	차수제	차스민	차옥자	차은주	차지혜
채예랑	천대녕	천민영	천수경	천승환	천연승	천예민	천윤서	천지민	최경희	최동수
최동원	최둘순	최라운	최민성	최민영	최민정	최민지	최복연	최봉준	최사랑	최석선
최소영	최수현	최순연	최아람	최연옥	최영수	최영철	최영철	최예림	최외남	최원식
최원진	최유진	최윤선	최은경	최은정	최인영	최일화	최자윤	최재림	최재희	최정이
최원진	최지은	최진원	최진태	최준선	최태정	최해빈	최현주	최혜나	최혜진	최흥희
추동숙	추미옥	추미진	추현근	추형록	탁영화	탁재근	탁재근	하기훈	하성민	하수봉
하승혜	하외숙	하윤봉	하인목	하정원	하정현	하태훈	하태훈	하동훈	하남영	하상훈
한소영	한예원	한재솔	한정아	한지원	한지환	한태경	한혜숙	함초자	허남영	허다인
허세현	허승민	허시은	허원주	허유리	허은희	허정훈	허종수	허태희	허하은	허혜숙
홍윤기	홍경희	홍도순	홍영숙	황 훈	황금선	황다빈	황복원	황순목	황슬기	황은지
황재구	황정옥	황정원	황지민	황지원	황지희	황희철				

후원자 명단

2008년 - 2024년

(주)플랜디 1990후 25시분식나라 CU 도남사랑점 gs 통영온화점 gs25 21세기 gs25 문화점 gs25유수안점 GS25미동점 KB통영지점 KT통영지점 NK헤어 SKY유통(윔트리) SLS조선(전장설계팀) TG골사모 가마골 강건완 강다연 강다혜 강동림 강동원 강미석 강미소 강미아 강보경 강보민 강복삼계탕 강부림 강분애 강삼률 강석주 강성욱 강성한 강수연 강순용 강순희 강영춘 강예나 강오분 강옥금강윤재 강은빈 강정식 강종한 강지겸 강진영 강진욱 강창우1 강창우2 강태호 강행정 강혜구 강혜원 강혜진 건강보험공단 결망개식당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수산물기술사업소 경남은행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고다희 고려당도남점 고병우 고봉민김밥 무전점 고봉민김밥 죽림점 고석경 고성자 고아라 고유빈 고정혜 고현진 공동한 공명숙 공민경 공봉숙 공윤주 공태원 공혜나 박이현 광도초등학교 교육청wee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고성지사 국민은행통영점 국민은행항남점 굴수협연쇄점 굿맘사랑어린이집 권경달 권동영 권미영 권수경 권순삼 권시은 권시준권영학 권윤식 권혁원 금은 금초음 금호리조트(주) 김가람 김가영 김가운 김갑석 김경남 김경미 김경선 김경숙1 김경숙2 김경숙3 김광석 김광석 김광웅 김기선 김기영 김기철 김나경 김나연 김나윤 김나희 김노경 김다솔 김단아 김달삼 김대경 김대규 김대윤 김대환 김덕예 김도겸 김도곤 김도성 김도연 김도영1 김도영2 김도율 김도현 김동진 김동환 김두선 김두자 김등춘 김라운 김라울 김레아 김로아 김리나 김명곤 김명국 김명선 김명숙 김명안 김명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수 김미애 김미자 김미정1 김미정2 김미지 김미화1 김미화2 김민규1 김민규2 김민석 김민영 김민정 김민제 김민준1 김민준2 김민지 김민창 김 별 김병훈 김보상 김복희 김봉숙 김봉희 김상문 김상영 김상우 김상의 김상협 김셋별 김생동 김서빈 김서우 김석금 김석원 김선례 김선아 김선우 김선희 김성득 김성련 김성욱 김성철 김세곤 김세령 김수자 김수희 김승현 김시경 김시훈 김애리 김연우 김영복 김영상(동양생영) 김영세 김영옥 김예강 김예람 김예원 김예주 김옥녀 김용우 김용자 김유나 김유준 김윤숙 김은미 김은우1 김은우2 김은주 김의신 김이든 김익진 김인숙 김일한 김재돈 김재연 김전욱 김정경 김정기 김정렬 김정례 김정부 김정숙1 김정숙2 김정숙3 김정아 김정인 김정현 김정화 김정화 김종관 김종근 김종민 김종식 김종욱 김종태 김주아 김주아 김주은 김주찬 김준홍 김중현 김지성 김지수 김지영 김지영 김지윤 김지윤 김지현 김지훈 김진갑 김진성 김채운 김초연 김춘도 김춘선 김태민 김태이 김태인 김태화 김판갑 김필삼 김하람 김하울 김하울 김학수 김한별 김한솔 김한식 김한준 김해년 김현길 김현준 김현지 김현철 김혜란 김혜린 김혜림 김홍지 김 환 김요술 김희경 김희정 김희진 나기석 나정아 낙원짬 남경연 남기주 남명건설 남민영 남부어린이집 남승희 남현우 남환용 노성진 노주아 농촌지도소생활개선회 뉴그린마트 농협하나로마트북신점 늘사랑어린이집 다사랑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 달라스 대양c&c (이승우) 대우소방공사 대원식품 대한민국불교 나눔실천 승가회 대한석유협회 더팰리스어린이집 도남관리사무소 도남동주민자치위원회 도남마트모금함 도남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도남의용소방대 도담어린이집 도봉새마을금고 도지훈 도천어린이집 동그라미어린이집 동백투어 동부산대학 동원해물천국 동진카유리 동호전기 동화나라자연어린이집 두룡초등학교 동지어린이집 땅땅치킨 도침점 류경희 류상우 류상태 류운정 류위정 류재식 리틀상상마루어린이집 리틀영재어린이집 림애나 림한나 마중물 모녀칼국수 무전어린이집 무전한우 문순주 문율림 문이순 문종순 물사랑나눔단 미소어린이집 미수교회 미수어린이집 미수주공어린이집 민명규 민지우 바다와시인 바리바리 박갑득 박건률 박경은 박경일 박경주 박극동 박기수 박기욱 박대웅 박동관 박동수 박동숙 박두연 박명숙 박미숙1 박미숙2 박미욱 박민정 박민준 박상우 박서우 박석돌 박설아 박성철 박성칠 박소명 박수동 박순미 박순생 박순옥 박순한 박승규 박승아 박시안 박시은 박시현 박시후 박연순 박연희 박영기 박 영 박영숙1 박영숙2 박영웅 박영희 박예안 박용식 박유자 박윤비 박은이 박은주 박임자 박재홍 박점보 박 정 박정구 박정원 박주연 박주영 박지영 박지은 박지환 박진현 박차철 박찬울 박천순 박철희 박태윤 박평조 박하영 박현규 박현숙 박현일 박형주 박혜빈 박효린 박효선 박 훈 박희준 방청원 배서희 배영타일 백권춘 백승윤 백영자 백원흠 백장용 백지원 변대운 변은실 변재수 변종태 변지아 보성녹돈 본한의원 봉평동행정복지센터 봉평동우체국 불력제빵소 블루마트 사랑꽃어린이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청최혜면 새생명교회 새동영농협안화지점 서근혁 서금남 서민한우 서복남 서성록 서영숙 서영우 서윤성 서울미용실 서울전기조명 서지우 서지훈 서춘자 서태인 서피랑떡볶이 서하나 서혜원 서효승 석창환 선거관리위원회 선촌마을 부녀회 설주련 설태자 설혜원 성경호 성덕경 성동만 성동조선해양 성 림 성명만 성민유지원 성봉중 성부열 성용관 성용기 성우석 세광한의원 세이브더칠드런 소수연 소예진 소우준 손경아 손두란 손미숙 손승준 손영주 손윤희 손재범 손화식 송경영 송금열 송무원 송옥희 송은혜 송장현 송필영 송화짬 수다마켓 숲속나라어린이집스카이마 스카이마트 스타벅스북신점 스타벅스이마트점 승예경 신나라어린이집 신도현 신미선 신서연 신소은 신소정 신승우 신영단 신외순 신용석 신원태 신정숙 신지애 신찬식 신평호 신한카드(국민연금) 신혜지 신화유지원 심성임 심재양 심현채 십오야 싱글빙글어린이집 씨제이프래시웨이주식회 아낌없이주는나무 아이들과미래재단 아혜련 아이세상어린이집 아이스빈커피 아파트지역후원금 안다솜 안다울 안미정 안상훈 안유선 안정숙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8명의 개인후원자, 참 좋은 동행점, 기관·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유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자 명단만 게시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정어린이집 안준우 양 경 양선정 양순영 양승만 양시은 양은진1 양은진2 양재모 양재일 양재혁 양정훈 양종열 양차용 양형석 양호건 양호린 양희성 연양본갈비죽림점 엄남희 앤돌핀노래방 엔젤어린이집 여송복지재단 여지환 여호영 연꽃어린이집 열린에지어린이집 열매어린이집 염승현 영재어린이집 오갑주 오명숙 오명임 오세권 오영주 오임숙 오지은 오테언 오현선 옥은령 옥태형 올리손칼국수 요거프레소 무전점 옹화짬 우길혜 우리마트 우민석 우성수산 원광어린이집 월드마트 월드비전 월드비전 경남지역본부 위영희 원저모텔 유동익 유명희 유민환 유상우 유상정 유소연 유시권 유연경 유영선 유영초등학교 유위숙 유이안 유인순 유진희 유해진 유혜란 유혜숙 윤경순 윤내과의원 윤득영 윤병용 윤병철 윤선미 윤성훈 윤승현1 윤승현2 윤지윤 윤훈선 으뜸어린이집 음악화후원금 이강중 이경미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국성 이규성 이근형 이금복 이금설 이나현 이덕희 이도경1 이도경2 이도렬1 이도렬2 이도원 이동준 이동환 이돌순 이령경 이로하 이명희 이미경 이미라 이미리 이미숙 이민근 이민지 이민호 이병철 이복순 이복자 이분이 이삭어린이집 이삼숙 이상균 이상근 이상중 이상옥 이상운 이상욱 이성룡 이성림 이성희 이습어린이집 이 수 이수빈 이수진1 이수진2 이수진3 이순자 이승안1 이승안2 이승찬 이승현 이시윤 이신지 이쌍화 이아인 이영곤 이영노 이영복 이형희 이영서 이영수 이영숙1 이영숙2 이영순 이영희 이예린 이예솔 이예준 이예지 이오종 이용운 이원숙 이유경 이유영 이윤선 이윤선 이은수 이은숙 이인우 이재림 이재용 이재웅 이재호 이정민 이정연 이정은 이정임 이정춘 이종근 이종혁 이준호 이준호 이지성 이지성 이지원 이진용 이진호 이진화 이차근 이창구 이창원 이채우 이채은 이철성 이춘수 이춘영 이춘희 이필숙 이필호 이하나 이현우 이현아 이현옥 이해림 이해림 이해수 이 호 이호영 이호준 이홍우 이화영 이화용 이 환 이희자 인디자인 인영인수 인평초등학교 임강섭 임기덕 임도현1 임도현2 임동자 임병철 임보민 임봉선 임봉임 임서후 임석찬 임성돈 임시은 임실만 임윤철 임정미 임종돌 임지예 임채민 임화영 임희연 임희열 자연숲어린이집 자연채식당 자유건축 자은종합사회복지관 장다훈 장부길 장석철 장세복 장아랑 장영석 장영주 장원태 장윤경 장재완 장종실 장창석 장철승 장태균 장하은 재단법인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전상영 전순근 전승환 전영식 전원새움어린이집 전유현 전자랜드 전재양 전정도 전지원 전창환 전하민 전현자 정갑순 정경임 정규만 정기주 정덕순 정덕임 정득수 정민경 정민성 정민호 정보배1 정보배2 정복근 정봉식 정부영 정삼근 정상기 정선경 정선옥 정성곤 정순용 정아람 정연의 정영규 정영남 정예린 정예원 정예지 정외숙 정용채 정윤재 김미혜 정이우 정재익 정재현 정재훈 정정빈 정종근 정주진 정주홍 정주홍 정주희 정철주 정충식 정필주 정하랑 정하린 정하원 정혜원 정혜인 정혜진 정호진 정호철 정홍철 정 훈 정희남 제경화 제귀숙 제상철 제순옥 제일천막 제정모 제주도세기 조경희 조광일 조규일 조규천 조길훈 조남권 조대현 조동수 조명근 조미민 조민경 조민규 조민정1 조민정2 조서윤 조서현 조성길 조소영 조수점 조순영 조양우 조연길 조예솔 조용득 조원주 조은선 조은숙 조은영 조이담 조이수 조재형 조정연 조정현 조정현 조정희 조주희 조중동 조현수 조형구 조혜원 주수선 주순희 주식회사통영신문 주영어린이집 주영훈 주은숙 주철재 주주희 주충부 죽림어린이집 주택관리공단울산경남지사 죽림초등학교 지센항남점 지현서 지현아 진남초등학교 진용우 차민성 차민성 차 빈 차상희 차서영 차수민 차영철 차영한 차윤아 차평순 차현수 차현정 챌린지 천미옥 천승현 천시은 천예원 천필순 천하준 초원어린이집 최광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 초코렛어린이집 최랑호 최명자 최문경 최미정 최민준 최병권 최부순 최삼림 최상률 최서연 최순주 최시우 최아리 최연옥 최영진 최영진(최희정) 최예령 최예은 최우영 최원주 최윤정 최은미 최은열 최재호 최정미 최정희 최종기 최지혜 최평림 최하랑 최현수 최희중 최희철 추동숙 추두연 추영석 추영석 추영진 추희준 축복어린이집 축협도남지점 충렬여자고등학교 충무관광호텔 충무마리나리조트 충무어린이집 충무카센터 커피모노비 큰별어린이집 키즈스쿨어린이집 태평교회 통영ic 충전 통영YMCA 통영YWCA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나잠제주부녀회 통영라이온스클럽 통영루지주식회사 통영생활체육회 통영서물별원 통영세관 통영수도센터 통영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영시청어린이집 통영신문 통영어린이집 통영여자고등학교 통영의료재단통영삼성병원 통영이마트 통영초등학교 통영해양동우회 통영현대교회 튼튼어린이집 팔마석유 평생교육진흥원 푸르지오어린이집 풍성한교회 하경희 하 늘 하명선 하민우 하수봉 하웅수 하재웅 하정훈 하진미 하태홍 하트하트재단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도지주택공사 한려동부사무소 한려초등학교 한마음식당 한바빈 한산대첩47기봉사자회한산신문 한수진 한승희 한일식당 한진약국 한창석 한희영 한효주 함소미 함소연 함양집(김춘옥) 해다른어업회사법인(주) 해맑은어린이집 해모로어린이집 해양수산사무소 향토집 허경혜 허도명 허라울 허상득 허선희 허성권 허소울 허수원 허숙희 허영희 허은희 허점숙 허정우 허정웅 허태석 현대자동차 현대제철새마을금고 현수빈 현승엘리베이터(주) 혜성어린이집 호두나무실비 흥쓰꾸꾸미 흥영숙 흥은표 황경림 황민구 황서현 황성관 황순현 황예은 황정원 황지영 황지희 황춘희 황태경 황현자 흙친갈비

스마일 메시지

- › 나는 사무실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 › 도남사회복지관은 주민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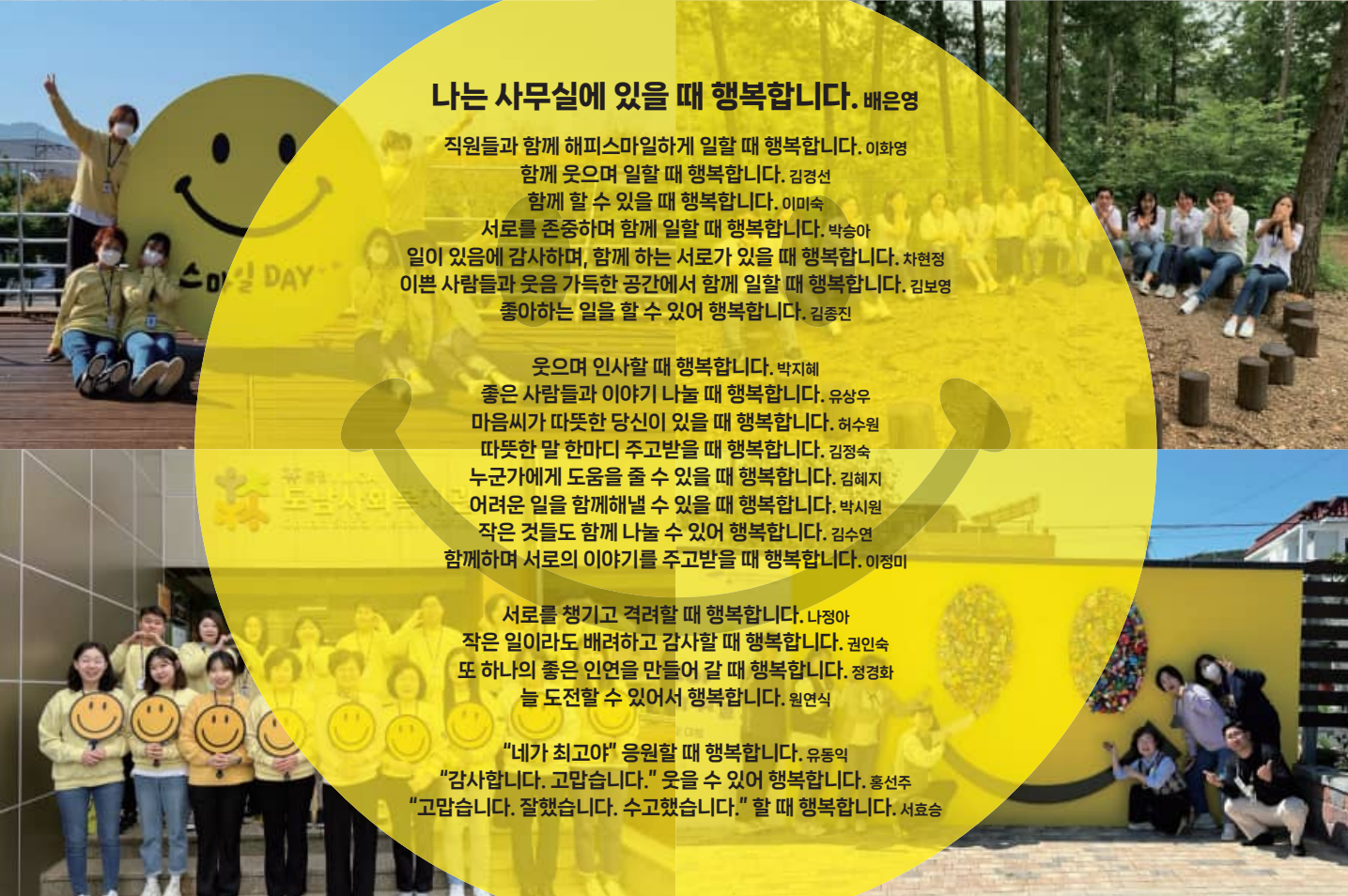
나는 사무실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배은영

직원들과 함께 해피스마일하게 일할 때 행복합니다. 이화영
함께 웃으며 일할 때 행복합니다. 김경선
함께 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매숙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일할 때 행복합니다. 박송아
일이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하는 서로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차현정
이쁜 사람들과 웃음 가득한 공간에서 함께 일할 때 행복합니다. 김보영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종진

웃으며 인사할 때 행복합니다. 박지혜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행복합니다. 유상우
마음씨가 따뜻한 당신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허수원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을 때 행복합니다. 김정숙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김혜지
어려운 일을 함께해낼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박시원
작은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수연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행복합니다. 이정미

서로를 챙기고 격려할 때 행복합니다. 나정아
작은 일이라도 배려하고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권인숙
또 하나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 때 행복합니다. 정경화
늘 도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원연식

"네가 최고야" 응원할 때 행복합니다. 유동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홍선주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할 때 행복합니다. 서효승



도남사회복지관은
주민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 할 내일'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